

찬란한 가을을 맞으며 _늘푸른대학 가을 소풍



가을 햇살이 달리는 버스 창에 모자이크처럼 그려지는 단풍을 보고 달리는 늘푸른대학 가을 나들이 10월 18일 화요일의 아침은 어르신들의 옷차림에서부터 달라 보인다. 4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모습들, 시간의 흐름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멋진 단풍색의 모습들과 같아지려는 마음인 듯 떠나보내는 모든 것들의 뒷모습을 보지 않으려는 듯 가을을 맞이하고픈 마음으로 “오늘은 우리 날

이구나” 하시며 단풍의 색이 좋다고 소문난 광릉수목원으로 떠난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광릉을 둘러보며 ‘공주의 남자’도 되어보고 공주(公主)도 되어보며 홍살문을 지나 전나무 숲과 단풍이 어우러진 길을 걷는다. 발밑에 부서지는 낙엽을 밟으며, 조각보같이 모자이크로 수놓아지던 가을 햇볕과 동행하며 얘기를 나누는 한 나절이 따스하고 행복하다. 모처럼 모든 분들에게 참 따스하고 편안한 휴식을 준 날이다. 이러한 감동의 발자취를 따라, 봉사자들 마음도 따라 간다. 마음을 가을하늘, 가을바람에 ‘후후’ 하고 날려 보내 본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깊이 있고 단풍 물들듯 색고운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을 시간들 그 시간에 함께 만났던 가을바람 단풍을 보며 마시던 커피한잔 불러다 가을의 마음 오래 간직하고 싶으시다 하시며 “이제 지고 말 단풍도 아깝고 구름도 아깝고 하늘도 아깝고 길가 쪽부쟁이도 아깝고 코스모스가 지는 것도 아깝고 지난날 가을의 추억들이 잊혀져가는 것도 아까워 오래오래 잡아두고만 싶네.” 하시는 어르신의 말씀 내년에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멋진 나들이에 또 만나지는 말씀을 들으며 ‘언제나 소풍이란 단어는.....누구에게나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인 것 같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학원선교부 가을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언제보다 쌀쌀한 추운 날씨가 일찍 찾아온 가을날, 정신학원 교정안에서 머물던 어머니들이 들로 산으로 기도나들이를 떠나는 시간이 왔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대관령 삼양목장에서의 하루가 펼쳐졌다. 엄마, 딸, 아내, 며느리로서의 일상의 삶의 자리를 잠시 뒤로 하고 기도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을 오르내리며 늦가을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풍력발전소를 지나가며 성령의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는 기도어머니들의 모습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넓은 들판에서 자유로이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과 소떼들을 보며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잠언27:23)는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다짐하는 하루는 금새 지나갔다. 8시 30분!! 출발 6시 30분 도착!!!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끽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가을이 지나면 영적무장을 단단히 한 기도어머니들의 멋지고 힘있는 월동준비가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 청소년사역원 류은정 목사 〉

* 성경 _ 한자로 풀어보기

敎會(교회)와 文化(문화)

11월은 교회와 문화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바 그 의미를 考察(고찰)해보기로 하자.

★**敎**(가르칠 敎) : 앞쪽의 耂(인도할 敎)와 뒤쪽의 “치다, 위하다, 애 쓰다”의 뜻이 있는 攴(攴 칠 북. 등 글월 문 방)의 합자이므로 「바른길로 인도하려고 애써 가르친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會**(모일 회) : 지붕아래 사람이 모여 사는 모양을 상징하는 宀(모일 집)과 거듭 하다는 뜻의 會(일찍이 중. 거듭할 중)의 획 줄임 글자를 결합시켜 「지붕아래에 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거듭 모인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다.

★**文**(글자 문. 글월 문) : 사람의 상체를 상징하는 亠(머리 두. 돼지 해 머리)에 화려한 문신 모양의 父(풀벨 예. 다스릴 예)를 결합시켰으니 「머리 아래 가슴에 새긴 화려한 문신이 발전한 것은 글자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글자의 생성과정을 보면 문신 → 무늬 → 기호 → 글자 → 문장 → 문서 → 책 → 학문으로 발전하였다.

★**化**(뉘 화) : 인류의 상징 人(사람 인)의 변형체 亻(사람인 변)에 등이 굽은 사람을 상형화한 匕(늙은 사람 인. 비수 비)를 결합시켜 「사람이 늙으면 모든 것이 변화 1」로 풀이하였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신화식목사동해 청운교회담임목사취임감사예배



2011년 10월 23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주님의교회 70여명의 교우들과 청운교회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요한복음 21장으로 말씀을 전하며, 신화식 담임목사가 앞으로 더 큰 시역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리를 전하기를 바라며, 동해청운교회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했다. 신화식 목사의 앞으로의 시역과 동해청운교회의 부흥을 위해 더 깊은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평양노회100주년 음악회



평양노회 100주년 음악회가 2011년 10월 16일(주일) 오후 7:00 주님의교회 본당에서 “역사의 노래, 부흥의 노래 교회 100년, 찬송100년”이란 주제로 열렸다. 역사를 통해 음악과 교회, 문화, 사회상을 볼 수 있었고, 목표의 식도 새롭게 다지게 된 멋진 가을밤이었다. 최초의 성서 판소리를 비롯해 평양노회까지 100년 동안 변해온 '찬송가'를 들으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써온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호스피스팀 소식



2011년 9월부터 11월 첫 주까지 매주 토요일 사랑나무실에서 "말기암 환자를 위한 림프마사지"와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하였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에센셜 오일의 종류와 효능을 정확하게 알고, 봉사생활 속에서 접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랐다.

권사회 야유회



10월 12일(수) 권사회에서 신입권사 환영 야유회를 광림비전랜드에서 80여명의 권사들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열렸다. 노랑게 물들어 가는 나무들의 오솔길을 걸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가꾸며 빛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묵상의 시간도 가지며 레크레이션으로 작은 즐거움도 가지며 붉은 단풍들과 함께 걸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꼈다.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_ 히 10 : 24 - 25

통 권 제 292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1년 11월 6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문화는 하나님 나라 향한 소중한 사역

‘모주왓 축제’에 즈음해 살펴 본 교회문화의 안과 밖

‘문화’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사회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계승되는 삶의 양식을 말하고, 좁게는 문학, 미술, 음악과 같은 예술적 활동이나 성과물을 모두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주왓 축제’에 즈음해서, 교회문화란 무엇이며 주님의교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편집자

주님을 가리는 성극과 음악과 그림과 사진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 10월 16일부터, 주님의교회에서는 감사절을 기념하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14) 말씀에서 비롯한 ‘모주왓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19일에는 성극팀에서 준비한 성극 <왕께 드리는 선물>이 공연되었으며, 이어서 미시오테이 찬양대의 <모주왓 감사찬양>이 은혜로운 가운데 연주되었다. 한편, 16일부터 30일까지 사진팀과 미술팀에서 준비한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제의 사진·미술·서예 전시회가 지하갤러리와 소식당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모주왓 축제’ 행사는 이밖에도 ‘추수감사절 쌀 나눔 행사’ 및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로 이어져서, 교인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 145:10)라는 말씀처럼, 이런 모든 문화 행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쓰임 받은 것일 터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활동의 다양한 스펙트럼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물려받은 것이며, ‘문화적인’ 것은 사람이 만들고 학습된 것이라고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쓴 존 스토틀 목사는 말한다. 오랜 시간 인간이 만든 ‘문화’들은 종족과 종교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바람직한 ‘교회 문화’

를 만들어가는 데는 대단히 깊은 성찰이 필요할 터이다. 특히 다양한 뿌리를 가진 여러 민족의 전통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존 스토틀 목사에 의하면, 구약은 인간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야기이며, 신약은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받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새롭고 화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로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이야기이다. 열방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기원을 가진 그들을 함께 모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교회 문화’는 바로 그들을 모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므로 보편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계 21:26) 것이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인간 문화의 다채로운 모자이크를 원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 교회에서, 전통 서사연희 장르인 판소리나, 국악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원하는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토틀 목사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문화의 기원 속에 있었을 우상 숭배와 같은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을 또한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주님의교회 사역들

주님의교회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예술분과위원회이다. 문화예술 분과는 호산나찬양대(1부), 시온찬양대(2부), 살롬찬양대(3부), 임마누엘찬양대(4부), 주오챔버 오케스트라, 할렐루야찬양팀, 미술팀, 성극팀, 사진팀, 기획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대는 각 부 예배와 여러

절기행사에서 찬양을 담당하며, 주오챔버오케스트라는 교회의 각종 절기 예배와 행사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담당하고, 할렐루야찬양팀은 수요일예배와 송구영신예배, 전교인수련회 등에 참석하여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담당한다. 2005년 선교사역을 위해 신설된 미술팀은 자체적인 미술 창작 활동과 정기 전시회 뿐 아니라, 하남비전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미술교육, 정서 교육 진행하고, 학원선교활동의 하나로 개원중학교에서 이화여대와 함께 미술치료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무지개 축제’ 등 교회 행사에서 배경을 구성하고 환경을 꾸미는 일도 담당한다. 성극팀은 연출, 의상과 분장, 조명, 대본 등을 맡아 각종 절기 행사에서 성극을 공연하거나, 교회 조직 별 성극 연습을 지원한다. 사진팀은 교회 내의 각종 행사와 사역 현장을 취재하여 교회의 역사 기록으로 보관하고, 정기적인 작품 전시회를 통한 자체적인 창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모주왓 축제’ 이전에도 이미 많은 문화행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진행된 바 있다. 4월 27일에는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로 살롬찬양대 지휘자 이동훈 작곡의 “골고다의 아침”이 서울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살롬찬양대의 연주로 공연되었고, 5월 25일에는 12단계 성경공부 9단계 개강을 맞아 박종호 CCM선교사의 찬양과 간증 집회가 있었다. 6월 22일에는 창립23주년 기념 음악예배로,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권덕원 작곡의 국악칸타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라”가 임마누엘찬양대에 의해 연주된 바 있다.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한, 거룩한 공동체의 은혜로 거듭날 것임은 물론이다.

< 편집부 >

주간 목회력

<새생명축제>
-초청일 12월 18일
-11.20 (주일)
STEP4: 새가족 미등록자 교육, 등록

<수능생 기도회>
-11.10(목) 오전8:30~오후5:00
장신대세계교회협력센터
<교육목회원 교사모집>-1층 안내데스크

<제5기 결혼예비학교>
-11.20~12.11(매주일)
<청년부흥집회>
-11.11(금) 오후7:15 / 중예배실



Thanksgiving Events

2

“모든 것이 주께로 부터 왔사오니” 축제가 10월 16일 주일부터 23일 주일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풍성했던 감사의 나눔



쌀나눔행사

다문화 가정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쌀 나눔 행사는 많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진행되어 쌀 712kg를 포함해 성금 1,246만원을 모았으며, 현재 탈북 청소년 기숙형 대안 학교를 비롯한 14개 시설에 기부가 진행 중에 있다.

북한선교 바자회

10월 22일 청명한 가을 날씨 가운데 정신학원 강당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길지 않은 홍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이름 없이 기부한 귀한 물품들이 매진되는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여러 날을 섬겨준 이들의 수고였다. 모아진 성금은 비밀스러운 주님의 방법을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선교로 사용될 예정이다.



모주왔축제

특히 성극팀과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는 연합하여 한 무대에서 연극과 성가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기쁨이 되었다.



투님의교회 세례 교인되심을 축복합니다

2011. 10. 30(주일) 오후 4시,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입교세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주님과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는 입교, 세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교〉 고현영, 박진형, 이경하, 이혜진, 황혜진, 김예름, 김진수, 김한진, 박은진, 이예성, 정우림, 곽주형, 신현주

〈세례〉 강외분, 고정주, 권다혜, 김광수, 김민정, 김삼화, 김수미, 김승국, 박민지, 박수경, 박인호, 손연숙, 연은영, 윤 은, 이성주, 임차량, 정승연, 정태임, 조영호, 조옥희, 최경수, 최선영, 최화경, 한숙경, 한승희, 황본주, 송아미, 양재승, 이형래, 신대원



학생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어 온 주님의교회 미술선교팀 활동

주님의교회 미술선교팀과 함께 했던 ‘생활미술반’ 프로그램을 올해엔 못하게 되었지만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지친 마음을 이완시키고 생활 속에 예술적 감성을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을 선사한 미술선교팀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님의교회 미술선교팀은 강남의 K중학교와 S중학교의 학생들에게 토요 계발활동 ‘생활미술반’을 맡아 지도하였다. 대상 학생은 정서불안, 집단 따돌림, 이탈행동, 가출가능, 충동장애 가능성이 있는 학생과 일반 희망학생들로 선정되었는데 마음이 아프고 지친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 갈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지도했다. 미술선교팀의 화가, 도예가, 미술사가, 스텐실 전문가, 인테리어디자이너 등 팀원들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을 기획해, ‘역사 속 한국인의 초상, 시대와 문화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기’, ‘포프리 담는 유리볼 꾸미기’, ‘수묵화 그리기’, ‘스텐실 작업’, ‘나만의 꿈을 담은 도예 작업’, ‘감사의 카드 만들기’, ‘부채만들기’, ‘티셔츠, 가방 등 소품 작업’ 등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교사로 참여했던 봉사자들은 “간혀 있는 감성을 풀어내서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소망을 갖고 바라보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 일에 참여한다고 하시면서 동아리 활동 때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변화를 기쁘게 말했다.

이같은 미술선교팀의 꾸준한 통합예술치료섬김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내적 조화를 이루어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작은 씨앗이 되었음은 물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 더욱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한번 사랑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 선 하나 그리는 것도 힘들어하던 친구들이 어느덧 난초선, 좌란 그리기를 즐기게 되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워 어른들을 울리던 아이들이 저녁 무렵 엄마와 팔짱끼고 양재천을 거니는 다감한 아이로 변화해가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여백의 넉넉함을 아는 동양란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 주님의교회 중등부 및 수서중학교 교사 박형란 〉

“멋지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미술노품들을 만드는 중에 내 마음도 점점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여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동3 김호은(여)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예쁜 노품들과 실용적인 미술들을 배워 나중에 커서 사회 생활이나 독립해서 살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동3 박지호(남)



1. 꽃병 만들기, 어버이날 카드만들기
2. 옷걸이 만들기 (함혜련 집사)
3. 가방 만들기 (강정임 집사)
4. 스텐실 작업 (동경숙 집사)
5. 도예 작업 (신명식 권사)
6. 내가 그리는 행복을 담은 도자기
7. 수묵화 작업



쓰레기 단속

쓰레기나 마시다 남은 커피나 동글레차를 넣으면 깨끗한 컵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모자라지 않게, 넘치지 않게, 주님의 사랑처럼 주일에 즐겁게 나누는 커피한잔, 동글레차한잔, 마시고 난후 사용한 찻잔, 꼭 지정된 곳에 놓아주시기를...

